'코로나 그늘' 벗어난 반도체… 삼성·SK 글로벌 큰장 선도

코로나19 진정세, 언택트 확산
D램 수출 증가 등 회복세 전환

하반기 대형 신제품 잇단 출시
2분기 깜짝 실적 기대 등 '들썩'
美中 무역전쟁發 악재 우려 여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이 코로나19사태 진정세로 본격적으로 성장하려는 모습이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등 악재가 남아있어서 아직은 더 지켜봐야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국제반도체재료장비협회(SEMI)는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팹 투자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전년 대비 4% 적은 수준이지만, 2019년 전년비 팹투자 감소치인 8%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셈이다. 올 1분기 팹 장비 투자액 감소 예상치도 당초 전분기 26%에서 15%로 수정했다.

SEMI는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로 일반 전자 제품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크라우드 서비스와 서버 확대, 게임 소비 증가 등으로 메모리 및 IT 관련 장치 수요는 촉진되며 팹 투자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모습이다. 6만원대 초반이었던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6만원대 후반으로, 10만원대였던SK하이닉스목표주가는 11만원대로 껑충 뛰어올랐다.

반도체 시장이 다시 성장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가 확산하면서 서버향 메모리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이 다시 문을 열면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기 판매량도 회복되는 분위기다.

특히 하반기 대형 신제품 출시가 잇따라 이어질 예정이어서, 반도체 시장도 일찌감치 뜨거워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20과 새로운 폴더블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는 각각 신형 콘솔을 출시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실제로 5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7.1%나 증가하면서 코로나19 그늘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특히 D램 수출이 17.4%나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이 가시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2분기 실적 상승 기대도 높아졌다. 하나금융투자는 2분기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을 1조9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 밖에 전문가들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단,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버 업체가 코로나19로 반도체 재고를 크게 확대한 상황에서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것이다. 당장 D램 현물 가격이 2달러대까지 하락했다. 현물가격이 실제 판매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반도체 업계 재고 수준이 늘어났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미중무역분쟁 리스크도 여전하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사실상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고 규제한 가운데, 화웨이가 미디어텍 등 새로운 업체와 거래를 타진하면서 반사이익 효과 기대도 쪼그라들었다. 만약 미중무역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전세계 시장 위축이라는 또 다른 악재도 남아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LG화학 여수공장 전경,

LCD 접고 OLED 키운다 LG화학의 '선택과 집중'

중국 업체에 LCD편광판사업 매각
OLED 중심 핵심경쟁력 확보 주력

LG화학이 결국 비주력 사업으로 여겨졌던 LCD(액정표시장치) 편광판 사업을 매각하고 나섰다.

LG화학은 10일 최근 중국 화학소재 업체인 산산(Shanshan)과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에 'LCD 편광판' 사업을 매각하기로 하고,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 자동차용 LCD 편광판 등 일부 제품군은 이번 매각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에 따르면 산산과 LG화학의 지분이 각각 70%, 30%인 합작사를 설립하고, LG화학의 기존 편광판 법인을 합작사로 편입한 뒤 산산이 단계적으로 지분을 100%까지 취득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LG화학은 "이사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고, 산산측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해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추후 계약이 확정되면 공시를 통해 알릴 것"이라며 "당사는 IT소재 분야에서 OLED를 중심으로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편광판 사업의 경우, 국내 오창공장에서 생산되는 'OLED 편광판'을 주력사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이날 첨단소재사업본부의 향후 사업전략에 대해서도 밝혔다. 앞서 해당 본부는 지난해 4월 신설돼, '미래 시장과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IT소재, 자동차소재, 산업소재 등 3개 사업부로 재편된 바 있다.

먼저 IT소재사업부는 선제적인 사업 정비를 가속화하고, 기존 주력 사업 및 고부가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지난 2월 액정표시장치용 컬러 감광재를 중국 시양인터내셔널에 약 580억원에 매각하며 유리기판 사업에서 철수한데 이어, 이번에 LCD 편광판 사업까지 매각하며 미래 유망 소재인 OLED 소재 시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자동차소재사업부는 고강도 경량화 소재 사업에 집중해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등을 중심으로 제품 기능별 차별화된 소재를 개발해, 글로벌 고객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소재사업부는 전지 4대 원재료인 양극재 생산 기술 고도화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LG화학은 당초 2018년 세계 1위 코발트 정련 회사인 중국 화유코발트와 전구체 및 양극재 생산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해, 원재료에서부터 전구체, 양극재 및 배터리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바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